[별첨6]

사 업 보 고 서

(2021년도)

1-1. 사 업 개 황

제주감귤농협은 1960년 창립 이래 61년 동안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어 왔으며, 2021년은 『조합원 소득 증대 및 고객만족 경영 실현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농협 구현!』 비전(VISION 2025) 달성을 위해 노력 하였다. 2021년 경영방향으로는 「판매전문농협 구현을 위한 전문유통인력 육성, 산지유통센터 운영활성화를 통한 감귤 제값 받을 수 있는 유통시스템 구축」「수익창출형 지도사업을 통한 조합원 소득증대 및 품종별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전문기술 교육 확대」「농협의 경쟁력 강화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편 및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노력」을 선정하여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2년간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침체라는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임직원이 합심한 노력과 11,000명 조합원들의 지원과 격려로 2021년은 사업계획을 초과하여 당기순손익을 달성할 수 있었다.

사업부분별 세부 경영방침으로는 교육지원사업부분은 '고품질감귤 생산 확대 등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사업 추진' '생산출하조직을 중심으로 품종별, 지역별, 단계별 맞춤형 현장교육 강화' 판매사업부분은 '산지유통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산지유통이 주도하는 유통체계 구축' '소비 트렌드에 맞춘 전자상거래 체계 구축을 통한 온라인사업 확대' 구매사업부분은 '농약 맞춤형 처방 강화로 농업인 서비스 기능 확대' '농업인 선호도, 영농여건별 맞춤형 농자재 발굴 및 품목 확대' 신용사업부분은 '여신 건전성 중점관리 및 건전결산 강화' '저원가성 예금비중 확대로 안정적인 자금조달 기반 확보' '정책보험(농작물) 가입 확대를 통한 농업인 실익 제고' '상호금융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경영관리부분은 '질적 성장 추진으로 경영내실화 및 수익기반 강화' '자기자본 증대 및 합리적인 고정투자 추진으로 운영 리스크 관리' '부실채권 감축 및 채권관리 강화로 자산 건전성 제고' '미래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한 경영구조 내실화 실현' 등으로 하여 비전(VISION 2025) 달성을 위하여 전 임직원의 역량을 결집하였다.

사업부문별 주요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육지원사업

2021년 교육지원사업부분에서는 ‘고품질감귤 생산 확대를 위한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지도사업’을 위한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서 「브랜드감귤대학」을 통하여

감귤농업 전문지도사를 매년 양성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49명(제16기)이 수료하여 총 773명의 감귤농업 전문지도사를 배출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여성감귤농업인아카데미」 과정을 개설 43명의(제1기) 교육생을 배출하여 여성감귤농업인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여성농업인의 역량과 감귤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품종별, 지역별, 단계별 맞춤형 현장교육 강화를 위해 ‘영농상담사’를 영농지도팀에 배치하여 감귤관련 전문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축적된 감귤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고품질감귤 생산 관련 이론교육 및 조합원 농가 과원 현장에서 품목별 농가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주감귤농협에서는 경쟁력있는 우량품종 육성·보급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모수원·육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감귤농업인으로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조합원 및 농업인들에게 우수 묘목을 공급하고 있다. 2021년에는 농업인에게 98,970本의 우수 묘목을 공급하였으며, 2002년부터 2021년까지 누적 1,618,343本을 공급하여 농업인들이 감귤농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였다. 또한, 조합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합원 자녀교육 비용 지원을 위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대학생 자녀를 둔 103명의 조합원을 추천받아 1억3백만원을 지원, 현재까지 누적 10억3천2백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다.

□ 판매사업

2021년 판매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감귤 소비둔화와 하우스감귤 가격 하락으로 인한 어려운 여건에서도 노지감귤 1,028억원으로 전년대비 30.3% 성장, 비가림감귤 135억원으로 전년대비 3.9% 성장, 한라봉 161억원으로 13.3% 성장, 천혜향 165억원으로 3.5% 성장 등 판매사업 실적 2,234억원 시현하여 계획대비 103.9% 달성, 전년대비 2.6% 성장하는 성과를 보였다. 제주감귤농협 역사상 최고의 실적이며, 전국 농협 중에서 농산물 판매사업 매출액 1위를 달성하였다. 또한, 제주감귤농협 공동브랜드인 “불로초”는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여 소비자를 통해 선정하는 『2022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대상』 과수부문에서 12년 연속 대상에 선정되어 퍼스트클래스를 달성함으로써 대한민국 과수부분 최고의 명품브랜드로서 진가를 다시 한 번 공인받았다.

2021년은 제주감귤농협 감귤 수출 역사의 새로운 출발점이 된 해로서 제주도내 18개 농협이 참여한 ‘한국감귤수출연합(주)’에 처음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한국감귤수출연합(주)의 창립을 이끌었으며 송창구 조합장이 초대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겸임)로 선임되었다. 이는 제주감귤농협이 제주도 감귤 수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선도 농협으로서 책임을 다한 결과이다.

이용사업실적은 76억원으로 계획대비 81.5% 달성, 전년대비 △3.9% 역조되었다. 이는 하우스 감귤 하락에 따른 영향의 결과이다. 제주감귤농협은 2019년부터

정부 고령자 고용확대 정책 호응의 일환으로 시작한 노인인력개발원과의 MOU체결을 통하여 시니어형 일자리 창출 노력하여왔고, 2021년에는 보건복지부 고령자 친화기업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확대 추진하여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사회 발전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 구매사업

2021년 구매사업은 감귤농가의 실익증진을 목표로 지속적인 영농정보 안내 및 시기별 영농교육을 통하여 농약사업은 210억원으로 전년대비 5.3% 성장하여 제주감귤농협 61년 동안 최초로 200억 초과 달성 하였다. 자재사업소 구조조정(중문지점으로 합병)으로 인한 시설원예자재 판매 감소를 예상하였지만 적극적인 판매홍보를 통하여 계획대비 116.7% 달성하였다. 비료사업은 비료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비료 공급 감소와 주요 원자재(요소 등) 가격 급등으로 인한 비료 수급 불안정으로 매출액 74억원을 달성하여 전년대비 △5.9% 역조되었다. 구매사업 총 실적은 399억원으로 계획대비 102.2%달성, 전년대비 1.6% 성장하였다.

2021년 마트사업은 연중 통합전단행사(매월 2회)를 실시하여 전단지 제작, 배포 및 하나로마트 공식 밴드를 운영하여 제주감귤농협 하나로마트를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하였다. 지난해에 이어 ‘한우 잡는 날’행사를 실시하여 관내에서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매김 하였다. 그 결과 계획 대비 92.4% 달성, 전년대비 17.9% 성장하여 마트사업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다. 하지만 일매출 평균 금액이 제주도내 평균 밑을 보이고 있고, 관내 대형마트가 신설되는 등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흑자전환을 위한 대책 마련이 과제로 남은 한 해였다.

□ 신용사업

2021년 신용사업은 저금리 기조의 유지와 경기침체라는 어려운 대내외 상호금융 환경 속에서 ‘여신 건전성 중점관리 및 건전결산 강화’추진으로 지역밀착형 상호금융으로의 혁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 한해였다. 신용사업 주요 실적으로는 예수금 잔액 7,032억원으로 계획대비 100.5%달성, 전년대비 5.6% 성장하였다. 예수금 평잔은 6,963억원으로 사업계획대비 103.8% 달성, 전년대비 8.4% 성장하였다. 상호금융대출금 잔액은 6,744억원으로 계획대비 102.0% 달성, 전년대비 7.2% 성장하였다. 상호금융대출금 평잔은 6,432억원으로 계획대비 100.7%달성, 전년대비 7.5% 성장하였다. 어려운 국내의 농업경제상황에서 농업인에게 경제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책성 대출금 확대에 노력을 기울려 농어촌진흥기금은 대출잔액 1,216억원으로 도내 농협 중 점유 비 1위를 차지하였고, 감귤가격하락으로 어려

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시된 상호금융 백년농업 새희망 저리대출을 적극 추진하여 연말기준 총 잔액 65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완화로 협동조합 정체성 제고 및 농업인 실익 증진에 기여하였다. 또한, 선제적인 채권관리로 상호금융 연체율을 전년 말 1.03%에서 2021년 말에는 0.55%로 감소시켜 우리농협 자산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였다.

보험료는 179억원으로 사업계획대비 94.6% 달성, 전년대비 △1.6% 역조되었다. 농업인의 자연재해 및 농작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원예시설, 감귤) 3,821건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2021년에는 조합원 본인부담 보험료의 20%인 2억원을 우리농협에서 지원하여 보험 가입에 따른 조합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 할 수 있었다.

□ 경영관리

2021년 경영관리부문을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저금리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용사업부분에서 조달과 운영 금리의 예대마진율 유지를 위해 리스크관리팀 중심으로 금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신용사업 예금과 대출의 물량 확대를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다. 또한, 선제적인 채권관리로 연체비율을 전국 평균이하로 관리하였다. 경제사업에서는 판매사업의 하우스감귤 가격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역조된 부분이 있으나, 농산물 판매사업 전체 실적은 전국 최고를 달성하였으며 구매사업의 농약 사업도 제주도내 최고 매출액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하여 적자 사업소를 폐쇄하였고, 적정 직원 인원 운용을 통하여 최저임금의 상승에서도 인건비성 경비를 전년수준 유지 하였다. 그 결과 판매비와관리비는 전년대비 4억원 감소 하였다. 반면, 조합원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비는 49억원 지출 전년대비 4억원 추가 지원하여 조합원 소득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였다.

2021년 제주감귤농협 매출총이익은 411억원으로 계획대비 98.2% 달성, 전년대비 0.1% 성장, 판매비와관리비는 340억원으로 계획대비 91.2% 달성, 전년대비 △1.1% 감소, 영업손익은 71억원으로 계획대비 154.9%달성, 전년대비 6.2% 성장하였다. 당기순이익은 35억원으로 계획대비 114.6% 달성, 전년대비 38.8% 성장하였다. 2021년은 품목농협 본연의 역할 이행을 충실히 하며, 당기순이익의 계획대비 초과 달성을 이루어내 제주감귤농협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한 해였다.
2021년 결산에 있어 충당금 부분인 신용대손충당금, 일반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연차충당금은 법정 비율 이상 적립하였고, 조합경영기반인 재무구조의 건전화와 지속경영기반 강화를 위하여 농협법상 규정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의 50%이상(법적적립금 10%, 사업준비금 20%, 차기이월금 20% 이상)을 내부 적립하였다.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자본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충당금의 확실한 적립으로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